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2015.11.14.~2015.11.30]



201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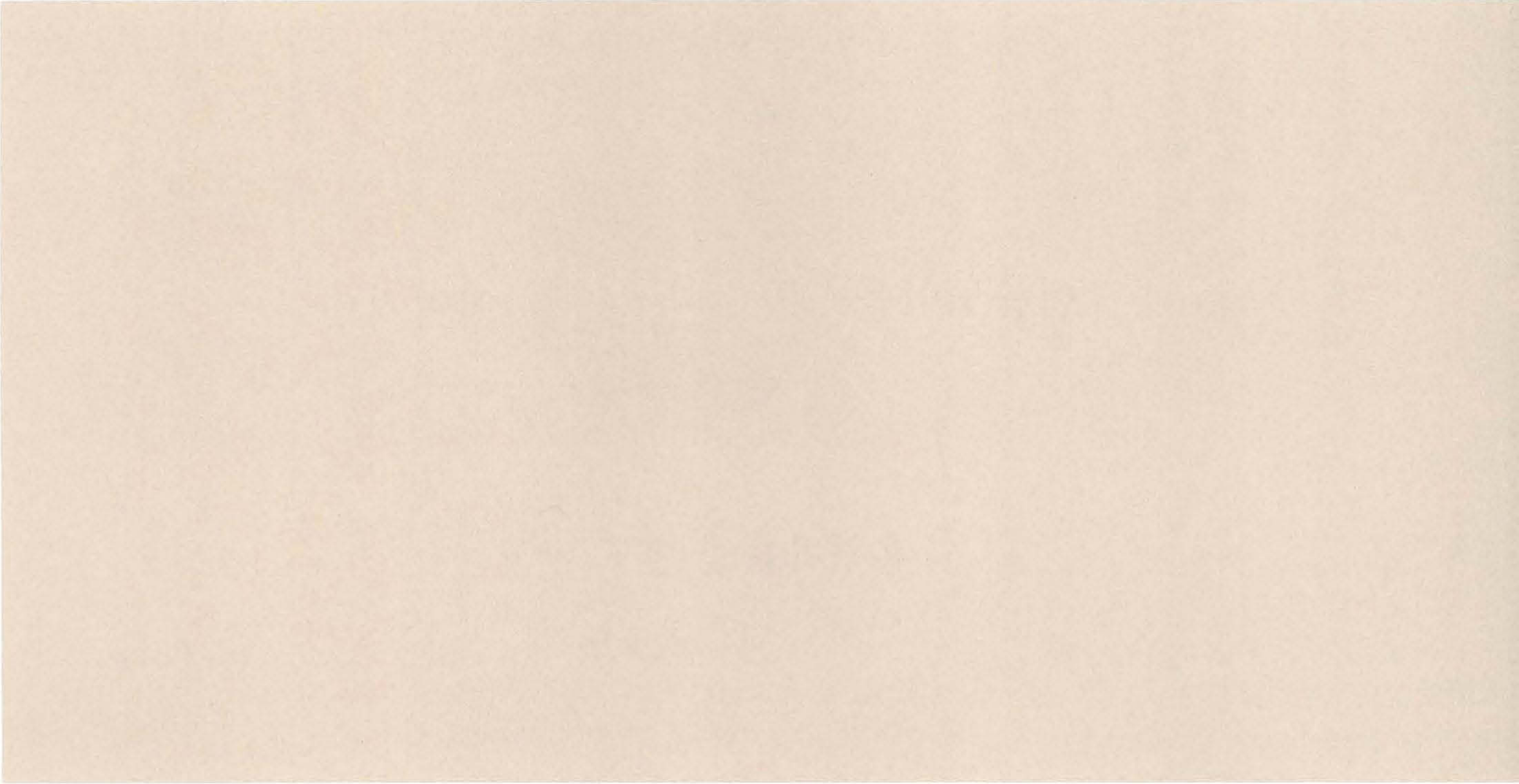
이응노마을
LEEUNGNOMVILLAGE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2015.11.14.~2015.11.30]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들어가는 말	05
양주명 · 이상숙 부부	07
최광해 · 김숙자 부부	17
방정일	29
신동학 · 노승순 부부	37
권재완 · 김영선 부부	47



2015 문화특화마을조성사업

이응노마을
LEEUNGNOVILLAGE

초대합니다

이응노마을 문화예술잔치

초대일시

|개 막| 2015. 11. 14(토) 12:00

|장 소|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 복지회관

|전 시| 2015.11.14(토)~11.30(월) 11:00~17:00

개막프로그램

1부

마을회관 "별의별 공간" 둘러보기 12:00~12:20

마을도서관(북카페) 차와 담소 12:20~12:30

기념관으로 이동 12:30~12:45

2부

기념관[홍성,답다]특별전 관람 12:45~13:00

점심식사_이응노생가마당 13:00~13:50

3부 <개막식>

이응노마을 사업 경과보고 14:00~14:10

마을다큐 영상 관람 14:10~14:15

내외빈인사 14:15~14:20

개막공연 14:20~14:40

천년홍성 오색오감, 공연예술제 15:00~16:00



이응노마을 상징조형물

'종치는 사람' 은 마을의 중심이 사람이며 모두가 주인이자 변화의 리더라는 상징을 담는다.
<종치는 사람>,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 우레탄도색, 60*60*220cm, 2015, 홍상식

이응노마을 이끌어가는 주민 리더 일상의 삶 들려줘

문화특화지역 '이응노마을' 사업의 1년간 성과를 보여주는 홍천마을 주민 리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이번 주민 리더 다큐멘터리는 이응노마을 사업을 이끌어온 양주명 이장을 비롯해 방정일 총무, 김숙자 부녀회장, 나무공방 소풍 권재완 대표, 홍천마을 산야초 신동학 대표 등 5쌍의 부부를 선정해 영상 촬영과 도록 제작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주민 리더 다큐멘터리는 내포문화미디어센터(대표 노보성)의 영상 촬영과 편집 등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완료했으며, 이응노마을 신문 전상진 기자가 주민 리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상과 도록으로 제작된 주민 리더 다큐멘터리는 지난 2013년 <홍성, 답다>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되는 홍천마을 주민들의 기록.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별 하나가 아니라 광대무변한 우주공간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시작된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는 주민 가운데 연로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부부 10쌍의 과거와 현재의 일상 모습을 차분히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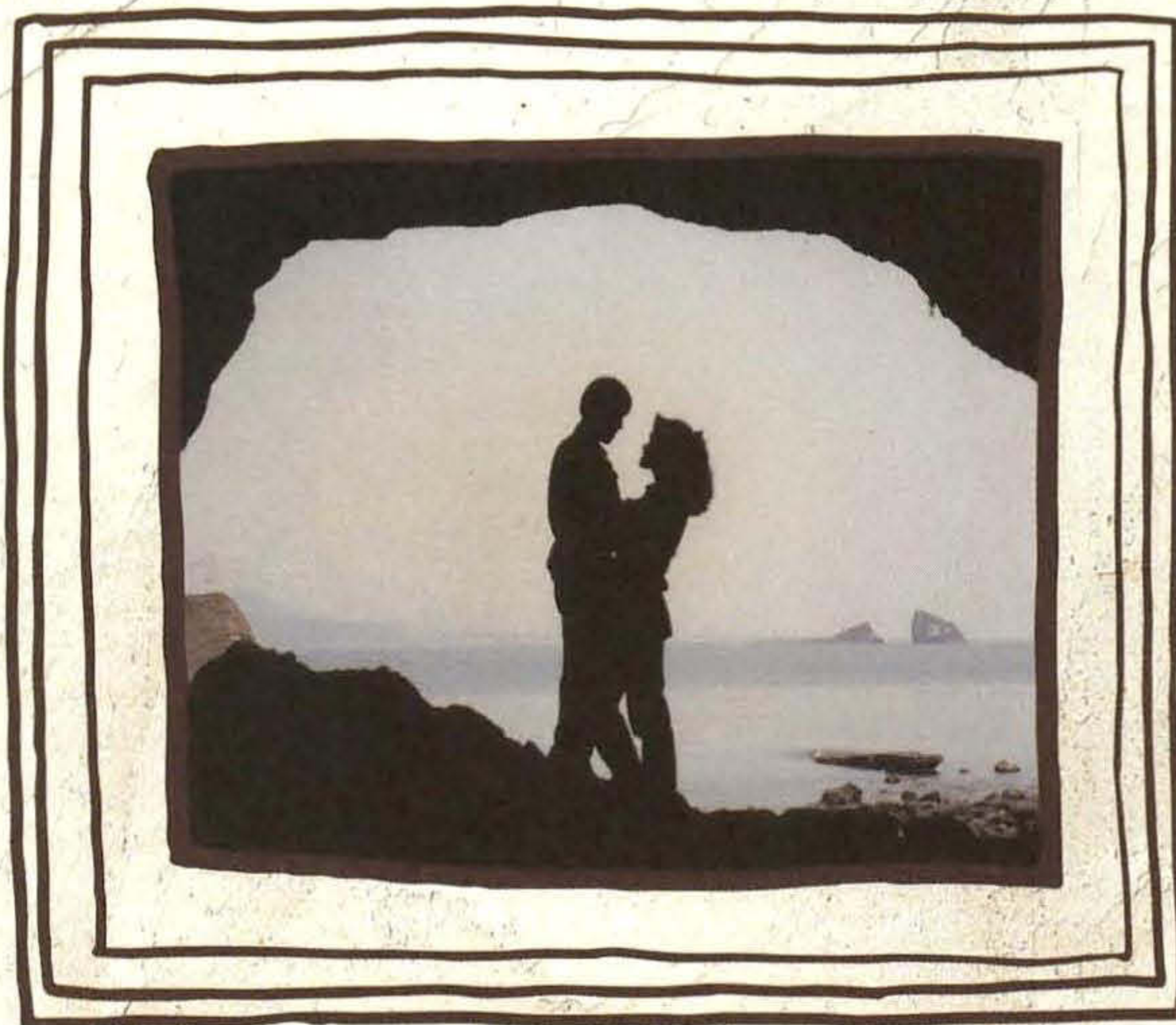
이번에 제작된 주민 리더 다큐멘터리는 이응노마을 사업의 준비부터 현재까지 항상 마을 일을 위해 앞장서는 주민 리더들의 일상적 삶을 영상과 도록에 담아 이응노마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 리더 다큐멘터리 영상과 도록 제작에 애쓴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영선(이응노마을 총괄감독 · 홍성생태학교 나무 이사장)



양주명 · 이상숙 부부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1937년 11월 27일
아버지 양준태 씨 출생

1942년 2월 5일
어머니 김정숙 씨 출생

1964년 8월 22일 (만 51세)
양주명 씨 출생
홍주고등학교 졸업.
공주산업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우와 양돈 축사 경영
그리고 홍천마을 이장
친한 친구는 김병태, 박인규, 백용기, 이기수, 장대근 씨 등이다.

1940년 10월 28일
장인 이관우 씨 출생

1940년 4월 13일
장모 구경래 씨 출생(亡)

1967년 5월 18일 (만 48세)
이상숙 씨 출생
천안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교는 굳이 말하기가 좀...)
타지에서 회사 근무하다 지금은 CCTV 관제센터 근무
친한 친구는 고묘금, 나순자, 이민순, 조소명 씨 등이다.

1993년 4월 11일
결혼

1993년 11월 19일
딸 양민희 양 출생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년 재학 (7급 공무원 시험 준비 중), 휴학중

1995년 10월 19일
아들 양민석 출생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2년 재학 (여객선 · 수송선 선장 꿈꿔)

1999년 4월 15일
작은 딸 양민경 양 출생
홍성여고 1학년 재학 (치과의사 꿈꿔)



졸업기념
1980.1.10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마을 농사도 잘 짓고

이응노마을 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바뀌야 성공할 수 있어

홍천마을 리더로, 마을 일이라면 항상 누구보다 앞장 서는 양주명 이장은 바쁘다. 때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때로는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로 바쁘다. 예술마을 조성 문제로 이응노의 집도 자주 찾는다.

양 이장은 “그전까지 위생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밖에서 홍천마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응노의 집이 들어서면서 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마을이 아름답게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도 마을주민 스스로 바뀌야 예술마을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양 이장은 확신한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항상 그림고 안타까운 존재

양 이장은 “부모님 두 분 다 ‘존경’ 하는 분들”이라고 말한다. 장남이지만, 홍성읍 내법리에 사시는 부모님을 두고 분가해 제대로 모시지 못해 늘 죄송스럽단다. “부모님이 없으면 나도 없어”라며 안타까워한다.

양 이장의 아내인 이상숙 씨는 밖에서는 벼루를 만들고, 명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친정아버지 이관우 씨가 가정에는 소홀한 탓에 서먹하기만 하단다. 친정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애써 살았으나,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외롭고 그림단다. “더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잘해드리지 못했다”며 이 씨는 안타까워 가슴이 먹먹하다.



1993년 제주도 신혼여행 - 소중한 사랑을 두손모아



1993년 제주도 신혼여행 - 사랑을 약속하며 제주도에서



행복에식장

新郎 양주명 君
新婦 이상숙 嬢

1991. 11. 11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자녀들 생각하면 '흐뭇'

그러다가 양주명·이상숙 부부는 자식 자랑할 때는 신이 난다. 1남 2녀 모두가 반듯하게 자랐으니, 그럴 수밖에. 자식들이 잘 컸으니, 살아온 날이 후회스럽지 않다. 큰 딸은 외교관의 꿈을 접었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아들은 변호사가 꿈이었지만, 재판정을 견학한 뒤 유전무죄^{有錢無罪}의 현실을 보고 꿈을 접었다. 대신 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실현하고 있으니 자랑스럽다. 막내딸도 치과 의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대견하다.

이 씨는 “아들이 사춘기 때 말도 없이 나에게 통명스럽게 대하고, 아버지에게 대들 때 가장 속상했다”며 “지금은 그런 아들이 싹싹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대견스럽다”고 칭찬이 끊이질 않는다. 양 이장도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기분 좋다”며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는 자식들이 생각하면 흐뭇하다.

큰 스승은 살아가는데 예의와 끝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양 이장에게 가장 큰 스승은 ‘예의’라는 걸 가르쳐 준 홍성읍 내법리에 사는 전 이장님이다. 그 이장님에게 무엇보다 사람의 도리를 배웠으니,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있겠는가. 아내인 이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산·부기를 가르쳐주고, 학원비를 내주는 등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선생님이 그림다.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주고 취업도 시켜줬으니, 이보다 더 고마울 때가...

양 이장은 요즘 교회 목사님이 선물한 ‘복자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 ‘복^福’이라는 100여 글자에 담긴 배우는 삶의 지혜를 하나씩 읽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되내면서 열심히 살자 한다”며 양 이장은 축사에 돼지를 들고 기계를 고치느라 분주하다.



1. 2014년 사랑하는 가족함께
2. 2004년 제주도 가족여행





1. 2002년 공주산업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기념
2. 3. 공부와 운동도 잘하는 자녀들의 자랑거리
4. 2000년 35주년 생일을 맞아 아들, 딸의 축하
5. 사랑하는 3남매





다시 힘내 자식 농사, 마을 농사 잘 지을 생각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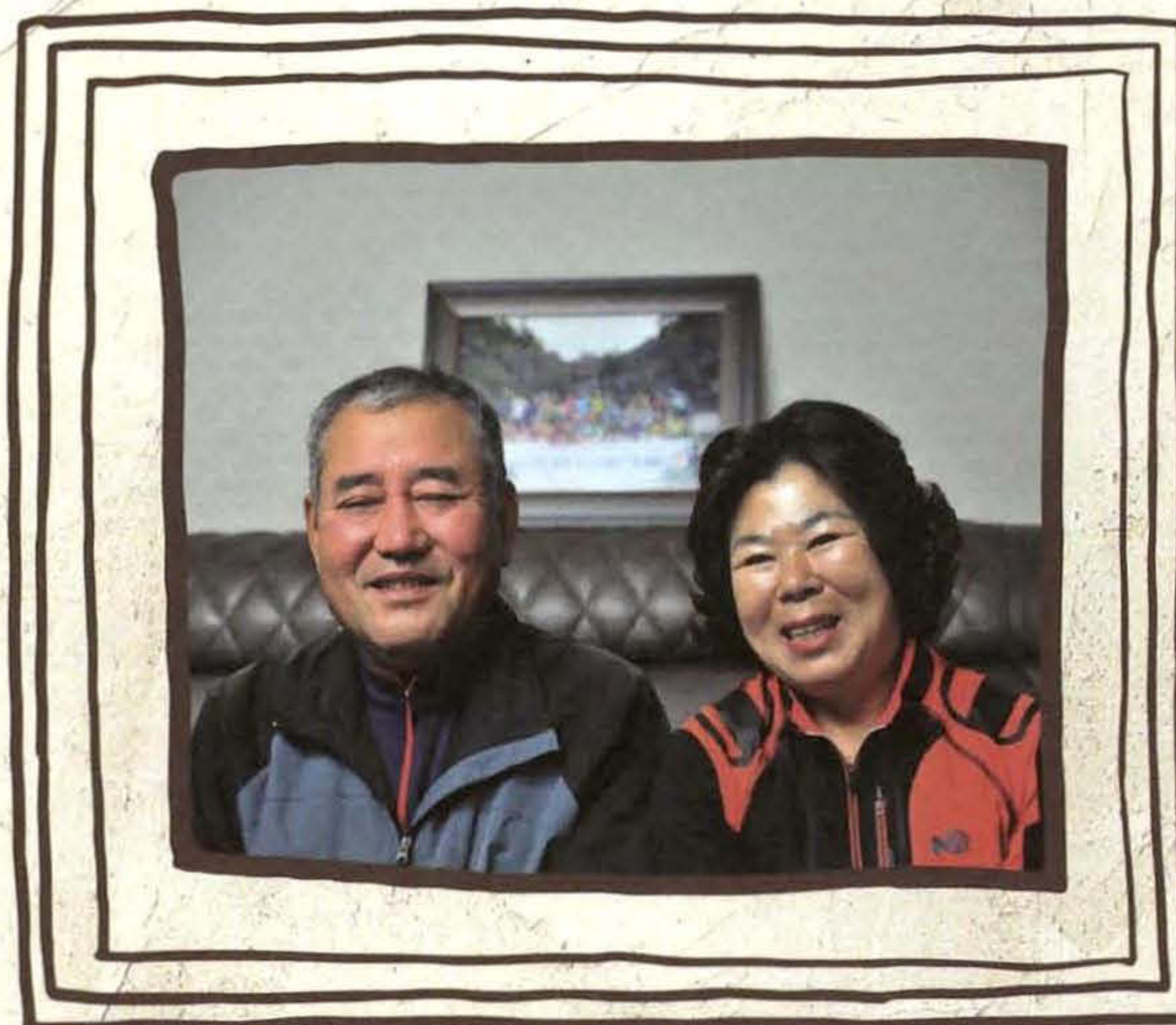
하지만 또 양 이장은 요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다. 축사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 다시 심기일전해 돼지 두 마리를 들였다. IMF 때 사료 값이 올라 어려울 때도 견뎠는데, 이 정도 쯤이야 '툭툭'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양 이장은 “다시 축사 일에 열심히 매달리겠다”며 바쁘게 움직인다.

커피숍을 내고 싶다는 아내 이 씨와 함께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마을 농사도 잘 짓고 있으니 그만하면 잘 살아온 길이다. 양 이장은 그렇게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마을과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최광해 · 김숙자 부부



이제 몸 안 아프고, 건강한 삶이 기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176번길 53번지

1937년 11월 27일

최광해 씨 출생

예산 대흥고등학교 졸업

타지에서 사업 하다 귀향해 지금은 한우와 양돈 축사 경영
친한 친구는 최광대, 최광덕, 최유수 씨 등이다.

1956년 6월 25일 (만 59세)

김숙자 씨 출생

학교는 굳이 말하기가 좀...

양품점 운영, 간호사 근무. 지금은 남편과 함께 한우·양돈 축사 경영

그리고 홍천마을 부녀회장

친한 친구는 김명란, 김영숙, 손영란, 연영숙 씨 등이다.

1985년 3월 3일

결혼

1986년 2월 16일

아들 최청수 출생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

1989년 3월 19일

아들 최무성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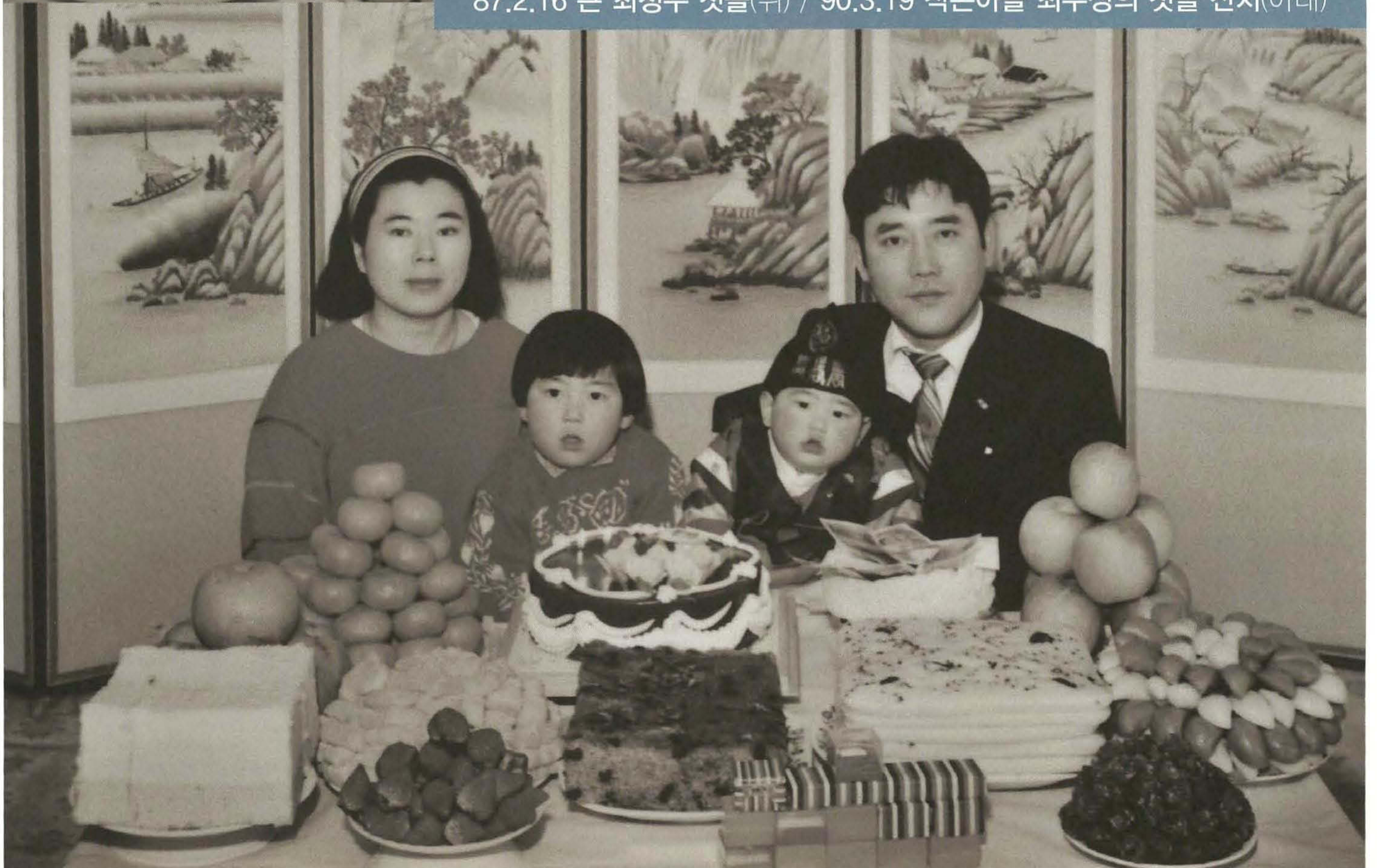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과 4년 재학 (변리사 시험 준비 중)

그밖에

양가 부모님 모두 열심히 살다 돌아가셨다.



87.2.16 큰 최청수 첫돌(위) / 90.3.19 작은아들 최무성의 첫돌 잔치(아래)



“일할 때 일하고, 자식들 성공만 바라며 살아”

이제 몸 덜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기쁨

홍천마을 축사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돼지를 키워낸 최광해·김숙자 부부는 겨울이 다가오자 홍성읍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마을에 있는 집은 추워서, 겨울에만 홍성읍에 있는 집에서 산다”며 최광해 씨는 열심히 일한 뒤 등산하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이제 몸 덜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기쁨이지, 뭐 있나” 하는 최 씨는 아내 김숙자 씨와 가끔씩 여행을 다녀오곤 한다. 김 씨도 이제 “죽어라고 일만 하면 되나, 일하다가 가끔씩 바람도 쐬야지” 하며 웃음 짓는다.

부모는 그리운 큰 산, 자식은 두고두고 자랑거리

최광해·김숙자 부부에게 부모는 큰 산이었다. 이미 양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평범한 농사꾼인 부모님들은 “생활력 강하고 열심히 살며, 자식을 키워낸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라고 최광해 씨는 말한다.

최광해·김숙자 부부에게서 자식 자랑은 양주명 이장 못지 않다. 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고, 둘째 아들은 대학에 재학하면서 변리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자식 자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아들 모두 참 훌륭하게 자랐다.

특히, 최광해·김숙자 부부에게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한 아들이다. “어렸을 때 부모 속 썩이지 못하게 호되게 가르쳤으니, 그만큼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잘 자란 거지, 뭐” 하며 최 씨는 여전히 두 아들을 자랑한다.



1. 1989년 양품점 가게에서
2. 둘째아들 홍성초등학교 졸업사진





1. 1985년 3월 3일 결혼식
2. 29살 집정원에서 사촌동생과 함께
3. 27살 간호사 시절
4. 1985년 제주도 신혼여행



축사 화재 등 시련 견디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4년 전 부부에게 닥친 화재는 크나큰 시련이었다. 전기 누전으로 축사 1동을 다 태우고 1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니, 그도 그럴 수밖에. 보험도 안 되고 축사 경영을 그만 둘까 했다.

하지만 맨 손으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사업이 망한 적도 있으니, 축사 화재는 별 일 아니라고 부부는 견디었다.

“이제 등산도 더 다니고, 여행도 더 다녀야지” 하고 최 씨는 그래도 참 잘 살았다고 자부한다. ‘항상 남 손가락질 안 받고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있나’ 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경영하며 부부는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

김숙자 마을 부녀회장, ‘잔치’ 준비로 노심초사

최 씨가 축사 경영에 전념하고 있다면, 아내 김 씨는 홍천마을에서 하는 일이 많다. 부녀회장으로 마을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 당장 11월 14일 ‘이음 노마을 문화예술 잔치’에 쓸 음식 준비에 분주하다.

김 씨는 결혼하기 전후로 양품점을 운영하고, 간호사로도 근무했다. 결혼 후 지금은 남편과 함께 축사 일을 하면서 마을 부녀회장으로, 마을 대소사에 빠짐없이 일을 거든다. 김 씨는 “이제 소망은 두 아들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라며 그동안 열심히 일할 생각이란다.





1. 1985년 대천해수욕장
2. 2007년 12월 25일
강원도 철원 15사단 첫째아들 면회가서





1985년 3월 5일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택시기사의 작품)



이응노마을 사업 잘 되고 있어 '흐뭇'

최광해·김숙자 부부는 “이제 몇 년 동안만 축사 일을 하다가 접고 편하게 살겠다”고 한다. 부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그만”이라며, 이응노마을 사업이 잘 되고 있어 흐뭇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언제라도 불러주면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

최광해·김숙자 부부는 이제 돌아가신 양가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아이들의 성공만을 소망한다는 부부는 오늘도 축사 일을 하기 위해 홍천마을로 향한다.



방정일



남에게 피해 안주고, 재미있게 잘 살자



1935년 1월 24일
아버지 방윤식 씨 출생

1947년 3월 19일
어머니 강희자 씨 출생

1967년 3월 28일 (만 48세)
방정일 씨 출생

홍주고등학교 졸업
타지에서 해태유통 등 직장 다니다 귀향해 농사짓고
홍천마을 총무. 그리고...
친한 친구는 글썄? '모두가 친구'

1995년 3월 14일
딸 방현주 출생
홍성여고 졸업 후 영국 유학 중 경영학 전공

그밖에
말하기 어려운 여러 일을 겪으며...
지금은 '행복'





부모 모시고, 더 여유 있게 잘 살고 싶은 소망 가져

부모님은 언제나 편안한 안식처이자 기둥

홍천마을 총무인 방정일 씨는 고향 홍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했다. 11년 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지키고 있다.

방 총무는 직장을 다니면서 삶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다.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 나누기를 꺼리고 피한다. 연유를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 우여곡절은 접어두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방 총무에게 부모님은 언제나 편안한 안식처이자 기둥이다. 지금도 그러하다. “늘 함께 살아서 잘 몰랐는데, 부모님은 언제나 안식처이자 기둥”이라고 말하는 방 총무는 “가까울수록 더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는 잘 모시려고 한다”고 후회스럽다는 표정이다.

유일한 혈육인 딸 지금 영국 유학 중, 항상 걱정이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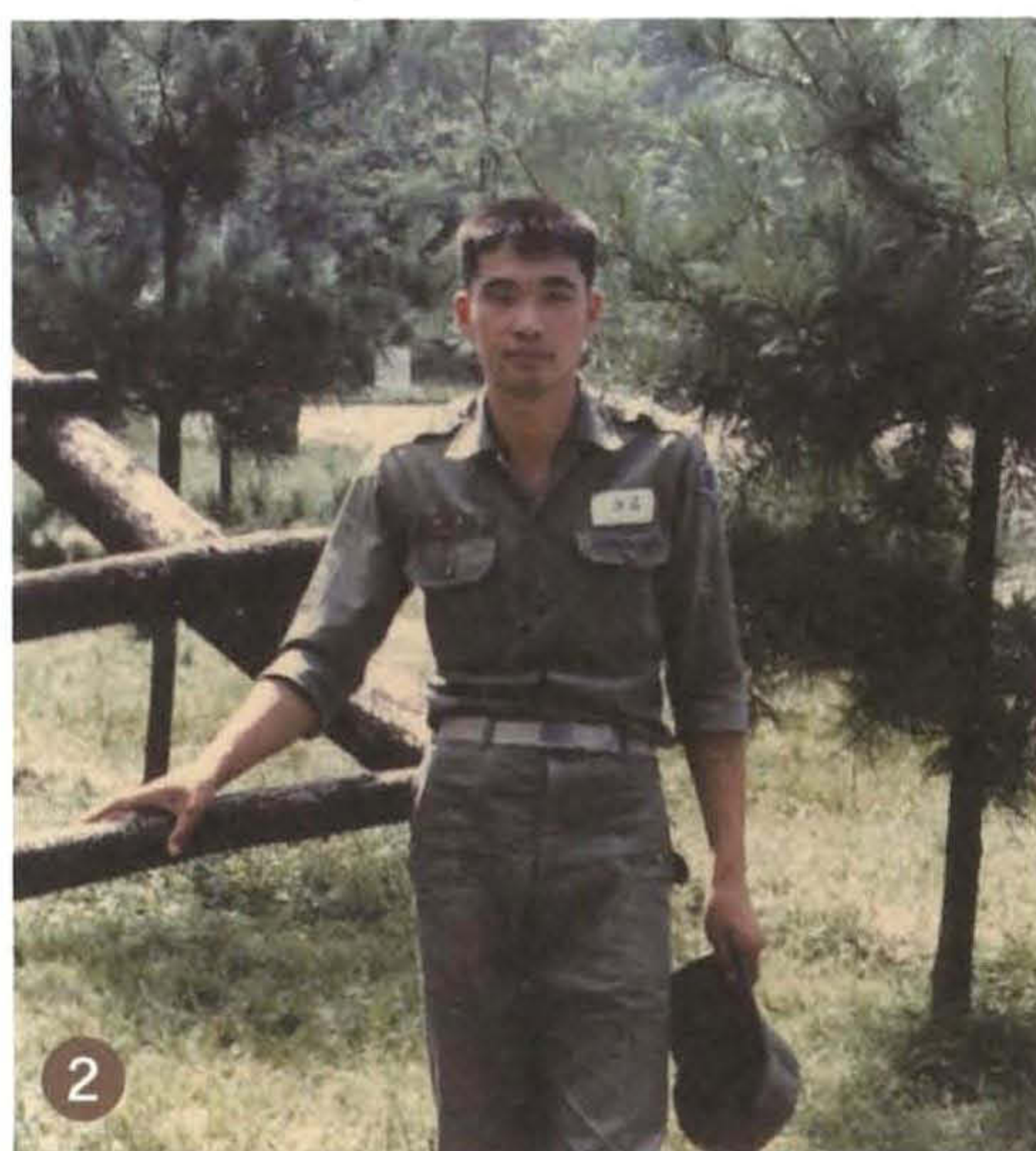
유일한 혈육인 딸은 지금 홍천마을에, 대한민국에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딸을 생각하면 한 편으로 대견하고, 한 편으로 잘 지내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방 총무는 딸 이야기에 눈이 ‘반짝’인다. 지난해 떠난 딸, 현주 양이 그림기도 하건만, 오히려 담담하다. “지난해는 적응 기간이었고, 올해 본과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며 “올해 6월, 여름방학에 왔는데 9월 추석 전에 떠났다”고 아쉬워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 기다릴 수밖에. 그렇게 담담하다.

그리고 방 총무는 아들을 잃는 ... 아픔을 겪었다. 방 총무는 여기서 더 말을 아낀다. 더 이상 묻기 어려워 다시 화제를 돌린다.





1.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2. 3.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행복’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바라고 있어

지금 방 총무는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아낀다. 상대방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시 또 화제를 돌린다. 그래서 방 총무는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산다. 참 힘든 시기를 잘도 견뎌왔다고 자신을 위로한다. 방 총무는 “잘 살아 보는 게 소원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자 한다”며 좀 더 여유 있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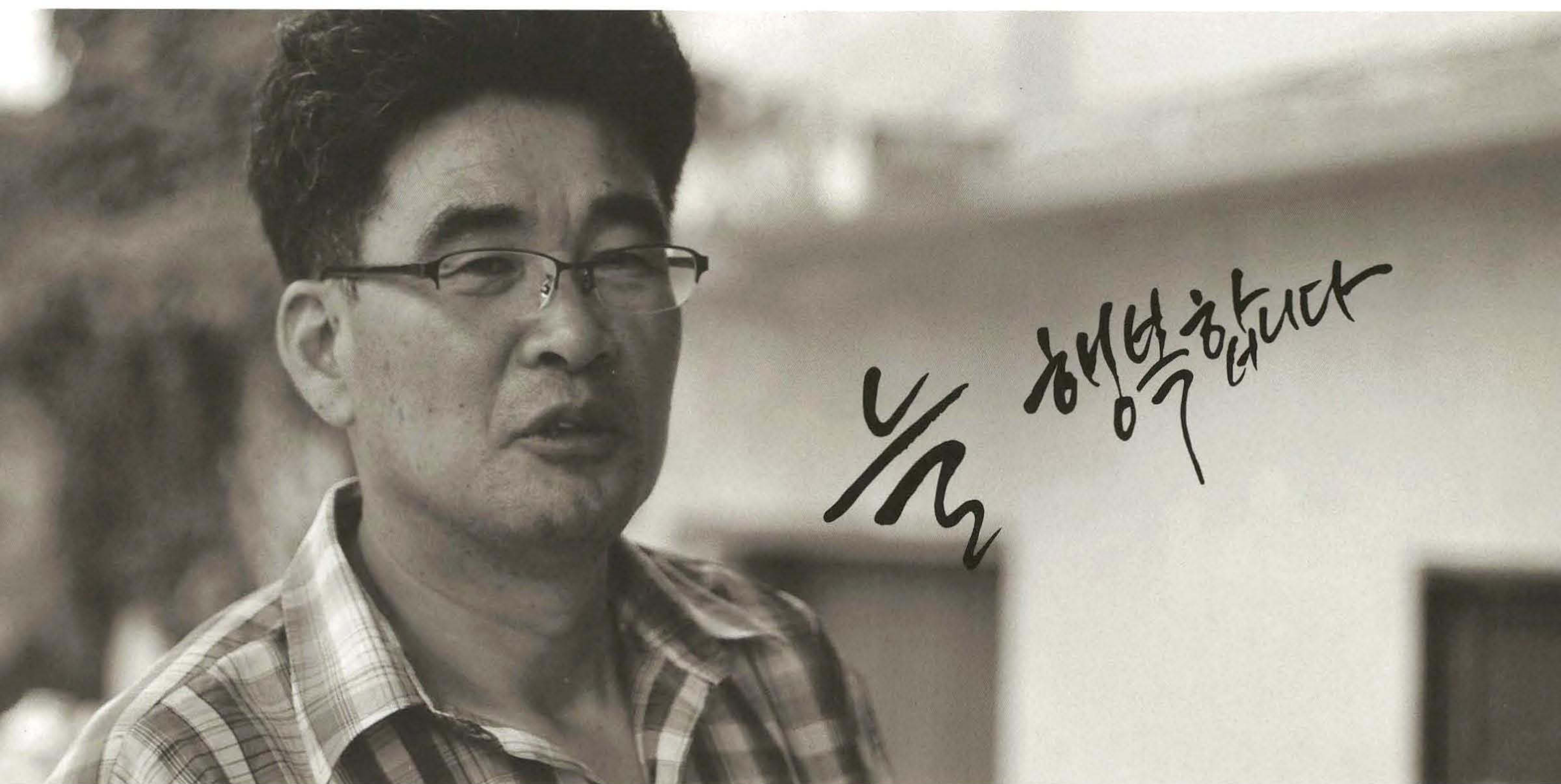
방 총무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니, 방 총무에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가 스승이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응노마을 사업, 예술마을로의 변화 가능성 보여

방 총무는 마을의 직책을 맡고 있으니, 마을 일에 소홀할 수 없다.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방 총무는 욕심 없이 남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웃과 마을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방 총무는 이응노마을 신문 인터뷰에서 “이응노의 집이 생겨 마을의 경관은 훨씬 아름다워졌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이응노마을 사업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며 “아직 확신이 없다. 더 노력해야 가능하다. 나 자신부터 이번 이응노마을 사업에 열심히 임해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 방 총무가 바뀌었다. “이응노마을 사업에 대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 조금씩 확신이 생긴다.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응노마을이 예술마을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도록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하며 “인터뷰는 안 했으면 한다”며 자꾸 말을 되뇌이고 있다.





신동학·노승순 부부



남에게 베풀고, 행복한 삶 살아가길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이용노로 98번길 23-35

1938년 4월 20일
아버지 신삼랑 씨 출생

1940년 2월 23일
어머니 최인희 씨 출생

1973년 1월 2일 (만 42세)
신동학 씨 출생
천안농업고등학교 졸업
타지에서 정수기 회사 다니다 귀향해 농사, 축사 경영하다 지금은 산야초 재배·가공 영농법인 내포드림팜 운영
친한 친구는 정책상, 지한석, 황일순 씨 등이다.

1938년 11월 22일
장인 노남희 씨 출생(亡)

1941년 7월 22일
장모 문희분 씨 출생

1973년 3월 10일 (만 42세)
노승순 씨 출생
해전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졸업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효소 만들기 교육과정 거쳐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산야초 재배·가공 영농법인 내포드림팜 운영
친한 친구는 원미라, 이용미 씨 등이다.

2013년 11월 2일
결혼

1999년 12월 16일
딸 신지혜 출생
홍주고등학교 1학년 재학

2000년 10월 23일
딸 지수진 출생
홍성여자중학교 3학년 재학

2002년 4월 23일
아들 신호재 출생
홍성중학교 1학년 재학

2004년 2월 29일
아들 지수민 출생
용봉초등학교 5학년 재학



산야초 명품효소 만드는 일 무척이나 행복한 부부

다시 시작하는 삶,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부부

신동학·노승순 부부가 재결합한 지 2년, 착한 네 아이는 한 식구가 되었다. 내성적인 남편 신동학 씨에게 아내는 행복한 구원의 선물이었다. 제2의 인생을 좋은 사람들이 만났으니 행복할 수밖에.

신동학·노승순 부부는 산야초로 인연을 만들었다. 지나간 일들은 접어두고... 산야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일이다.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즐거움도 더 커진다”는 신 씨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부모님은 의지 되는 대들보, 잘 되라고 격려한 밑거름

신 씨에게 부모님은 “항상 대들보 같아 힘들고 지칠 때 의지가 되고, 보탬이 된다”고 한다. 노 씨에게도 부모님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친정아버지는 산야초와 효소 만드는 일에 대해 항상 반대했다. 그냥 농사 짓고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일을 하면서 속을 썩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 지금도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노 씨는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어주셨다”며 “잔소리로만 알았는데 잘 되라고 해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그 잔소리가 듣고 싶다”고 한다.



산야초와 함께하는 부부

무엇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최선

신동학·노승순 부부는 열심히 사는 길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게 최선의 삶이라고 한다. “산야초 명품효소를 만들고, 마을 일에도 부지런히 나서는 지금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는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자녀들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말을 아낀다. 양쪽 다 한 번씩 실패한 뒤라서 자녀들에 대한 말은 더욱 아낀다. “그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최선”이라고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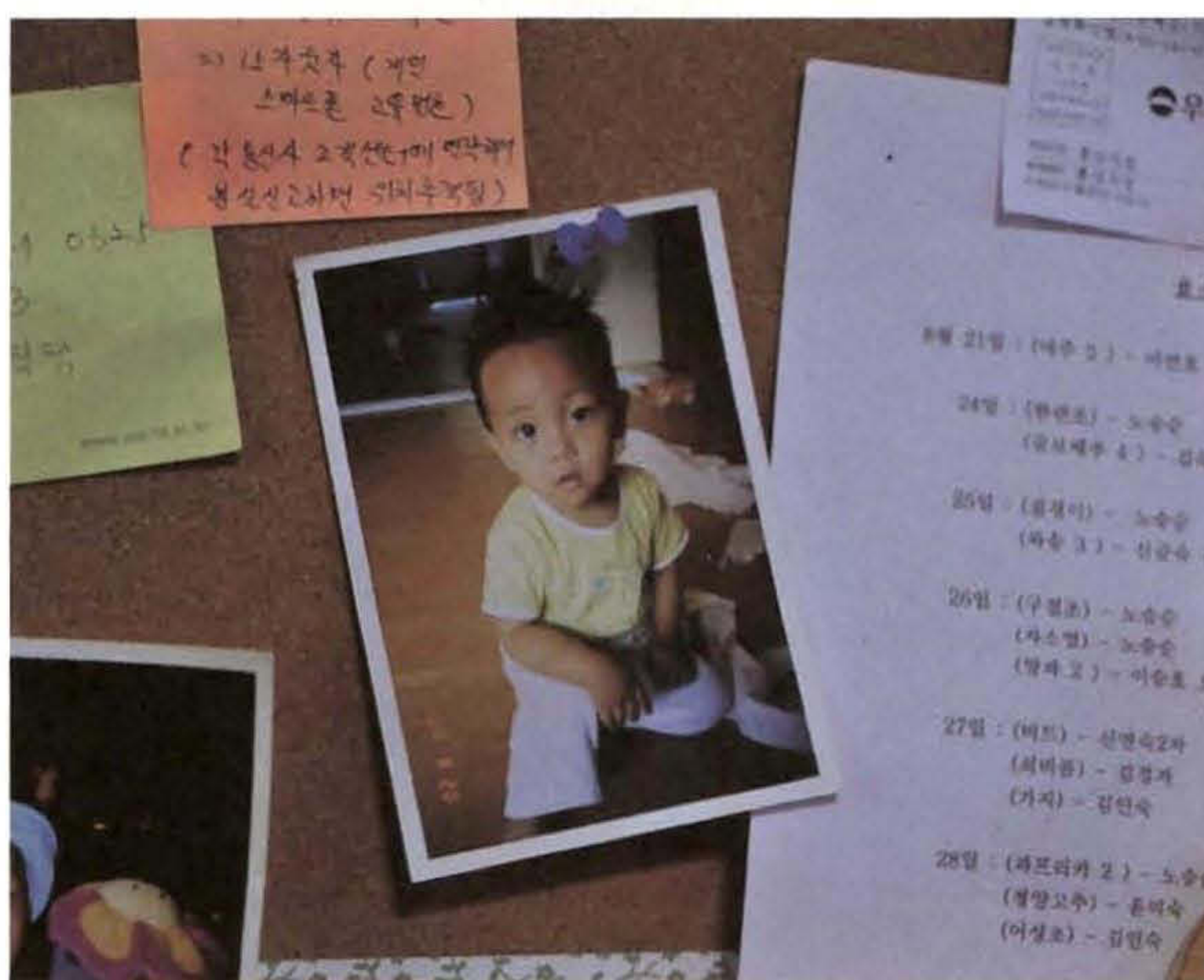
산야초 명품효소 만드는 일이 천직^{天職}

자녀들에게 부모가 항상 좋은 것을 대물림하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면, 지금도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아내 노 씨는 늘 뒤처짐 없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히 앞장서는 편이다. 산야초 명품효소 만들기에 있어서도 충청·대전권 회장을 맡으면서 더욱 바빠질 일만 남았다.

반면, 신 씨의 성격은 아내 덕분에 많이 활달해졌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일도 겪고, 시골로 내려와 산야초와 효소로 자리를 잡았다. 이젠 아내와 함께 산야초 명품효소 만드는 일이 천직이 되었다.

남에게 베풀면서 마을 일에도 앞장 서

신동학·노승순 부부는 지금 행복하다. “우리가 잘 살아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는 마을 일에도 적극적이다. 민들레가 염증이 좋다고 기자에게 한 박스 건네주는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 예쁘고, 나보다도 ‘우리’라는 베푸는 마음이 예쁘고, 마을 일이 생기면 앞장 서 달려가는 모습도 예쁘다. ‘이응노마을’ 사업이 성공하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도 정말 예쁘다.







1. 산야초의 향에 취하다
2. 산야초, 명품효소는 다양한 효능을 지닌다
3. 산과 들에 약이 되는 산야초와 사랑에 빠지다
4. 산야초 사랑에 빠진 님을 사랑하는 남자



권재완 · 김영선 부부



행복은 생활 속,
남 폐 끼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98번길 23

1934년

아버지 권정두 씨 출생(亡)

1932년

어머니 지옥희 씨 출생(亡)

1970년 11월 15일(만 45세)

권재완 씨 출생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은행원 근무하다 뜻한 바 있어 홍천마을 나무공방 '소풍' 운영

친한 친구는 변순학, 조규성, 주민규, 한상욱 씨 등이다.

1927년

장인 김진희 씨 출생(亡)

1932년

장모 이복임 씨 출생

1965년 3월 8일(만 50세)

김영선 씨 출생

단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은행원 근무하다 퇴직 후 지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

친한 친구는 이경희, 정윤경 씨 등이다.

1994년 6월 18일

결혼

2001년 11월 12일

아들 권혁준·권혁규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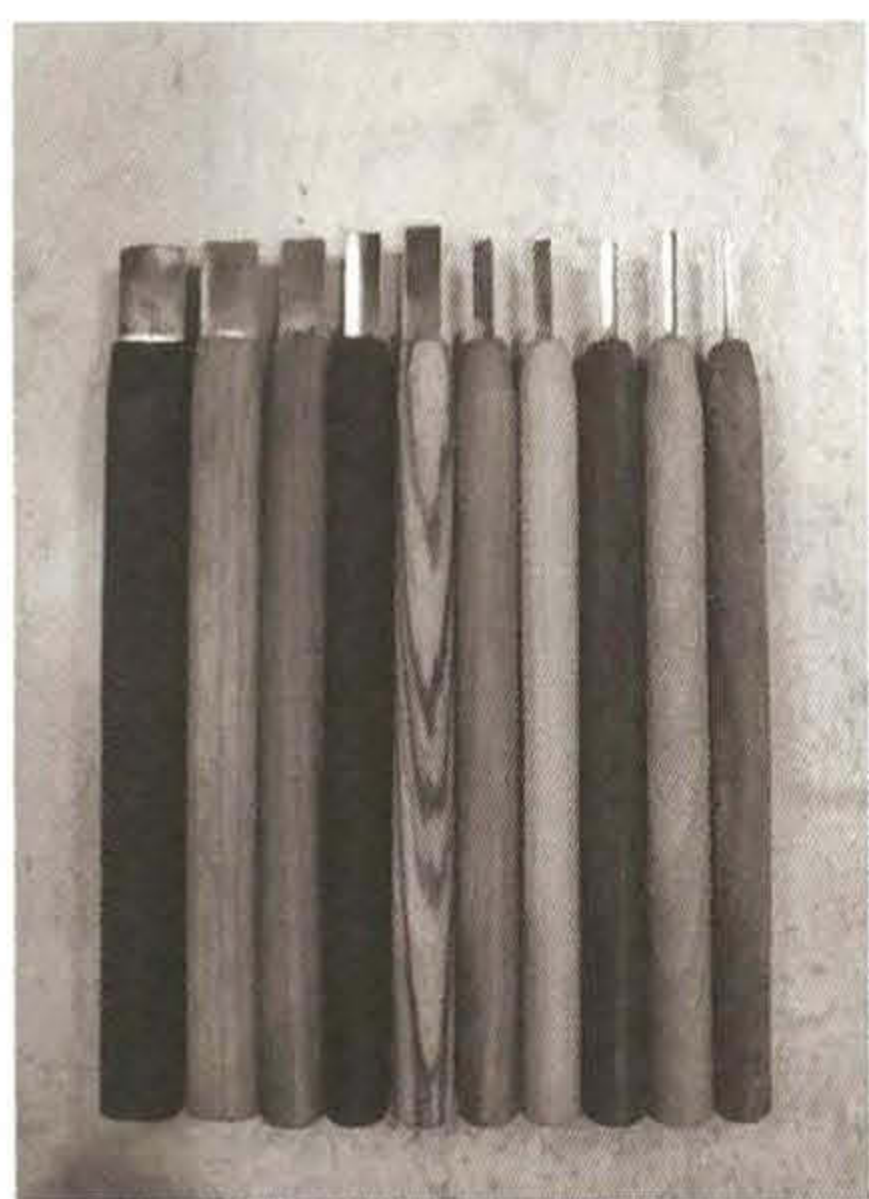
둘 다 내포중학교 2학년 재학





가족과 함께 나무 다듬으며 '행복' 한 삶 살아가

평생 나무와 함께 천천히 오래 걸어가고 싶어



권재완 씨는 “평생 나무와 함께 천천히 오래 걸어가고 싶다”고 한다. 15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운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다”며 홍천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권 씨는 홍천마을에서 터를 잡고 흰 디자인을 뜻하는 나무공방 ‘소풍^{消風}’을 차렸다. 그리고 마을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이다.

권 씨가 발령 받아 홍성에 온 것은 인연이었다. 명예퇴직을 하고, 홍천마을에 평생 살아갈 공간을 만들었다. 나무와의 인연으로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나니 취미가 직업이 되었다. 권 씨는 생활과 일체하는 가구를 만들고 싶어 한다. “나무는 사람과 비슷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가고...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향기 또한 너무 좋다”는 권 씨는 그렇게 홍천마을에서 가구를 만들며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2013년 강릉 기능대회 출전 「전국대회 동상 · 지역대회 금상」



부모님은 큰 어르신, 그리워하면 늘 연민이 생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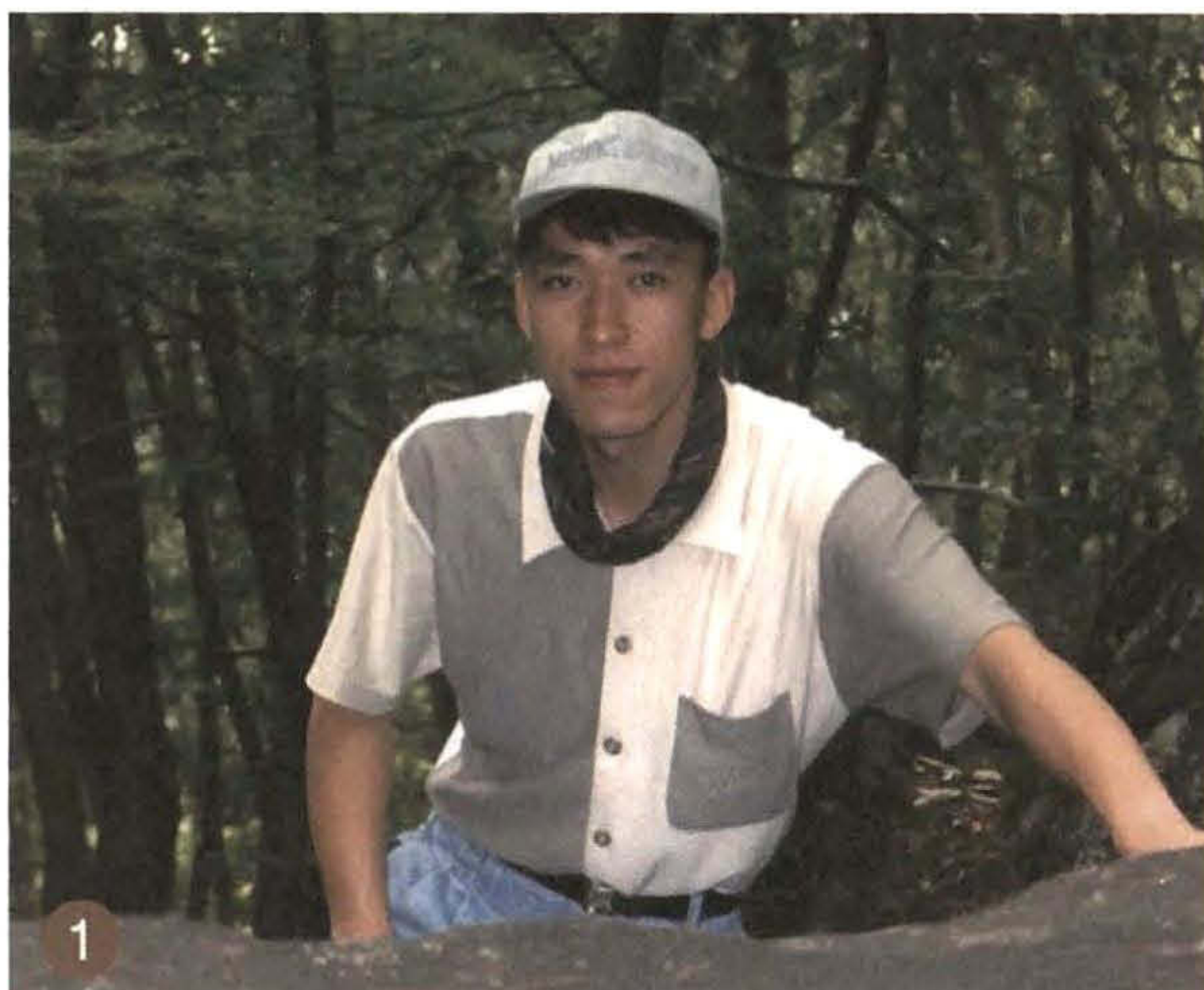
아내의 김영선 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남편보다 먼저 명예퇴직을 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림을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로 출근한다. 남편은 집 근처로 출근하고, 아내는 학교로 출근한다.

김 씨가 학교에서 퇴근 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권 씨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연민이 생긴다”며 “저를 있게 한 분들이고, 늘 큰 어르신들이었다. 떠나고 나니 이제야 그 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연민이 생긴다”고 한다. 김 씨는 또한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늘 걱정이 앞선다”며 “자주 연락을 드려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권재완·김영선 부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짝해진다.

쌍둥이 두 아들은 기쁘고 자랑스러운 존재

김 씨가 제일 기쁘고 자랑스러운 순간은 ‘두 아들, 쌍둥이를 낳을 때’ 라고 한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이 그 ‘무엇’ 하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김 씨는 두 아들이 무척이나 사랑스럽다.

권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생긴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혼낼 때 혼내고, 그 뒤에 사랑스럽게 안아주어야 하지만 늘 감정이 치우치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대하다 보니,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잘 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고 권 씨는 말한다. 그래도 두 아들이 아내만큼이나 사랑스럽다.





1. 1996년 여름산행
2. 1992년 11월 2일 일본 도쿄 동관사에서
3. 홍천마을 터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4. 청주에서 살때 집에서 놀면서
5. 쌍둥이 아들의 돌잔치



삶의 위기, 가늠해보면 생활도 가능해져

은행 퇴직 당시, 권 씨는 걱정이 앞섰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생활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해 하지 말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기술을 배웠고, 창업까지 준비했다.

아내 김 씨도 남편의 퇴직이 달갑지는 않았다. 김 씨는 가늠해보고 남편의 퇴직을 받아들였다. 남편이 은행을 그만두고 나무공방을 해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고 가능했기 때문이다.

1. 이응노마을 도서관 책상제작
2. 새로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목공구
3. 부부가 함께하는 마을 도서관 가구제작



때로는 미숙하지만 스스로 판단해 해결, 마을사람들과 융화되어 잘 지내길 바래

“때로는 미숙하고 시행착오를 겪지만, 스스로 판단해 해결한다”는 권 씨는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그런 권 씨에게 아내는 “행복은 일이든, 생활이든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며 사랑하는 것”라고 말한다.

김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인 윤강애 선생님을 좋은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다. 날카로운 춘철살인의 지성으로 빛난 가르침이 있었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굴곡 없이, 파도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는 권 씨는 앞으로 굴곡도 파도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갈 결심이다. 권 씨는 “밖에서 들어온 주민이지만, 마을의 일원으로 특별히 모나지 않게 열심히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김 씨도 “아직은 마을과 마을사람들을 알아가야 하지만, 융화되어 잘 지낼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두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려 종종 걸음을 걷는다.



201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응노마을 별의별 이야기]

홍천마을엔 별도많고

2015.11.14.~2015.11.30.

본 도서는 201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홍성군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각 글을 쓴 필자와 사진작가에게 있습니다.

발행인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발행일

2015. 11. 14

발행처

홍성생태학교 나무 www.econamu.com

주소 | 322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43번길 49

전화 | 041-635-9101

팩스 | 041-635-9105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홍성군

주관

홍성생태학교 나무

기획총괄

모영선, 윤후영, 전상진

편집·취재

전상진

기획운영

김두홍

기록

김유리, 이해인, 박지수

영상

노보성, 김란, 김동옥, 안희문, 이근배, 권기현, 양승범, 이태관, 양재영, 천설, 김동규, 김민정, 양정아

도록제작

(주)공감

주소 32244 충남 홍성군 대학길 25

전화 | 041-631-1997

팩스 | 041-631-1996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조창희

디자인·편집 | 김지혜

출력·인쇄 | (주)대진종합인쇄

“ 홍천마을엔 별도 많고 ”